

세월 위에 핀 꽃, 백세 어르신께 전하는 따뜻한 어버이날

가족의 정과 사랑으로 효심 되새겨

“어르신,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강진군 대구면 청룡마을의 한 가정에 특별한 발걸음이 닿았다. 백세를 맞은 장수 어르신 전주염 할머니의 집을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찾아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작은 시골 마을의 하루는 깊은 울림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올해로 백수를 맞이한 전주염 어르신은 강진이 품은 귀한 어르신 중 한 분이다.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며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전 어르신을 위해 강진군이 마련한 어버이날 방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강진원 군수는 직접 전 어르신께 붉은 카네이션을 옷가에 정성껏 달아드리며 안부를 묻는 순간은 지켜보던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강 군수의 따뜻한 인사에 전 어르신

은 미소를 머금고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할머니의 지난 세월만큼이나 고단했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옆에는 25년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던 자부 박경심 씨(72세)가 있었다. 박 씨는 25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농사일을 하며 시어머니를 돌보며 살아왔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가족 부양을 넘어선 ‘효행’ 그 자체였고, 2024년에는 효행상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이런 공로는 단지 박 씨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였고, 자녀들 또한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이날 강 군수는 며느리 박경심 씨의 손도 잡으며 “진심 어린 효심이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건강



어버이날을 맞아 백세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는 모습.

기원과 함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카네이션 한 송이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강진군이 한 어르신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이자, 한 가족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따뜻한 격려였다. 이날 청룡마을의 하늘은 평소보다 더 맑고, 햇살은 더욱 따사로우었다. 그 이유는 사랑과

존경이 오가는 그 집 마당에 봄보다도 따뜻한 정이 흘렀기 때문이었다.

이번 어버이날 방문은 가족과 공동체가 품어야 할 사랑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한 자리였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의 삶을 귀히 여기고, 가족의 따뜻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늘 곁에 있을 것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HD현대삼호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호텔현대(목포)에서 회사와 협력회사 임직원 부모님 400명을 초청해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HD현대삼호, 어버이날 맞아 ‘부모님 초청 효도잔치’

회사와 협력회사 임직원 부모님 400명 초청, 회사 견학·공연 등 김재을 사장,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하고 튼튼한 회사 만들 것”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가 노사화합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님 초청 효도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8일 호텔현대(목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회사와 협력회사 임직원 부모님 400명이 참석했으며, 회사 견학과 기념식, 오찬, 공연, 선물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부모님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목포시립무용단의 군무

와 국악 공연, 인기 가수 박현빈의 열띤 무대가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었다.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열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임직원들과 함께 사람이 우선되는 안전하고 튼튼한 회사를 만들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HD현대삼호는 노사화합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 초청 효도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고흥군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생활불편 해결사로 활약

주거 취약계층 343가구에 안전 손잡이, 보일러 수리 등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생활 속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17대, 240명)’가 군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등, 수전, 콘센트 교체 등 소규모 수리부터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까지 폭넓은 지원 활동을 펼치며, 위기가구를 발굴해 생활안정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해 복권기금과 전담도 자체사

업비 등 총 5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과 봄철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343가구에 1억 6,200만 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어려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군 관계자는 “복지기동대가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망을 운영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사전에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현장 방

문을 통해 일상생활 불편과 위험 요소를 점검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나주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다채’

복지관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청춘여행 등

나주시 관내 노인복지관들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고 경묘효친의 미덕을 되새겼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나주시노인복지관, 중부·동부노인복지관에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청춘 여행’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부노인복지관은 통기타 연주단 공연을 시작으로 200여명의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버이날을 기념했다.

이 카네이션은 ‘한림과 풀빛연구회’(회장 이영희)에서 직접 제작하고 후원하며 의미를 더했다.

윤병태 시장도 복지관 내 최고령 남녀 어르신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며 건강한 노후를 기원했다.

동부노인복지관에선 떡 케이크 커팅식과 나눔 행사를 가졌으며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선 어르신들의 청춘 여행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각 읍면동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어버



이날을 기렸다.

지난 5월 2일 성북동을 시작으로 3일 노안면, 8일 다도면·봉황면 등 읍면동 20

곳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경묘 행사가 열렸다.

나주/이명열 기자

곡성군, 어버이날 맞아 찾아가는 희망복지기동서비스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거동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복지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8일 죽곡면 하죽마을에서 2025년 제9차 찾아가는 희망복지기동서비스를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다양한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희망복지기동서비스는 농기계 수리, 한방진료, 전기안전 점검, 이동빨래방, 이동목욕, 찾아가는 안마서비스, 갈갈이, 맞춤형 상담, 방역소독서비스, 자활취업상담, 주택소방안전점검, 사진인화서비스, 군민활력증진 프로그램(풍선아트 공

예), 손마사지 및 손톱관리 등 총 1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날 마을회관 운영한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진행하였다.

칼같이 서비스를 받으러 온 어르신은 카네이션을 달고 사진을 찍으며 “어버이날이라고 해도 자식들이 바빠서 통화만 하고 말았다”라며 “마을로 찾아와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니 고맙고 행복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